

Japan Weekly Digest

2011. 9. 3. ~ 9. 9.

☐ 금주의 이슈

- 노다 신임 총리, 「국가전략회의」 신설

☐ 일본기업전략

- PC생산, 중국과의 비용차 축소로 일본으로 회귀
- 유니클로, 아시아 지역에서 대형점 전략 확대
- 닛산, 2016년에 한국판매 배로 늘려

☐ 경제산업성 동향

- 콜롬비아와 투자협정 서명 및 경제연대협정(EPA)교섭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
- 에너지효율에 관한 글로벌파트너쉽(GSEP) 제1회 워크숍 개최(9월6일)

☐ 보고서 리뷰

- 『경쟁력 강화를 위한 MICE 진흥 방향(上) ~ 도시의 집적기능 강화』 노무라종합연구소, 9월6일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노다 신임 총리는 9월 3일 신내각 경제운영의 핵심으로서 수상 직속의 가칭「국가전략회의」를 신설할 방침을 굳힘.
- 동 회의에는 노다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일본은행, 경제계, 노동계 등의 대표가 참여, 경제 운영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이나 세제 개정, 사회보장 등 일본이 안고 있는 중요과제의 기본방침을 제시
 - 일본은행 총재를 멤버에 추가한 것은 국가전략회의를 정부·일본은행간 연대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임. 엔高문제를 놓고 여야당내에는 일단의 금융정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수상과 일본은행 총재가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국가전략회의라면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임.
- 동 회의는 과거 고이즈미 내각에서 운영했던「경제재정자문회의」를 모델로 하여 정·관·민이 지혜를 모아 일본경제의 재생 체제 구축을 목표로 설정
- 수상은 국가전략상에게 회의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 이번 조각에서 국가전략상에게 경제와 사회보장과 조세가 일체화된 계획을 담당토록 하는 등 검토를 시킨 것은 이들 각각의 정책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며 국가전략회의 설치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동 회의에서는 예산편성이나 세제개정, 사회보장,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등 다국간·이국간 경제연대 등 중요한 정책들의 지침을 정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분과회의를 만들어 개별적인 과제를 다루게 됨. 관계 부서의 정부 3역이나 관료들의 의견도 청취하여 경제·재정운영의 방향을 설정
- 한편, 경제계와 연대를 강화할 목적도 있음.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하토야마, 간 내각이 경제계와 거리가 멀어져 왔음. 특히 간 정권 하에서는 원발정책을 포함, 정권운영을 둘러싸고 경제계와의 관계가 냉각되고 최근에는 정부의 회의에도 경제계의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 이에 노다 총리는 민주당의 유력한 지지단체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와 연대하여 경단련 등 경제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의향.

◆ 일본기업전략

□ PC 생산, 중국과의 비용차 축소로 일본으로 회귀

- 후지츠와 소니, 일본산 제품으로 수출 확대
 - 후지츠는 생산라인에 다수의 작업이 가능한 다기능형 로봇을 도입, 2013년에 2011년보다 3배나 많은 220만대를 수출.
 - 소니는 PC의 설계에서 생산까지 통합된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기종을 아시아 등지에 수출.
 - 각사 모두 국내공장의 생산혁신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일·중간 비용차가 축소되고 있어 고품질의 일본산 제품으로 신흥국시장을 개척
- 일본의 PC수출은 1996년에 연간 3,500억엔 정도에 달했으나 현재는 1,000억엔 전후에 머무르고 있음. 그동안 인건비가 싼 중국 등지에 생산위탁을 늘려옴.
- 그러나 중국은 인건비가 과거 5년간 2배나 상승하여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게 됨. 무엇보다도 일·중간 비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산혁신을 계속해나간다면 품질유지나 납기를 감안한 경우 머지않아 일본에서 생산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후지츠 관계자는 보고 있음.
- 후지츠는 2003년에 일본내 PC공장 등에서 도요타방식(TPS)을 도입, 매년 10% 이상 생산성 향상을 계속해왔으나 신흥국기업과의 경쟁이나 장래 예상되는 일본의 노동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 후지츠는 2013년에 PC의 세계판매대수를 1,000만대, 수출을 2011년의 3배인 220만대로 늘릴 방침. 또한 수출비율을 30%정도까지 인상, 주로 동남아나 중근동 지역에 대한 수출을 늘릴 방침임.
- 소니는 8월부터 VAIO(소니의 노트북 PC 브랜드)의 최상위 기종을 수출하기 시작. 동사는 작년 PC의 설계에서 생산까지를 나가노현에 있는 소니EMCS테크놀로지사이트에 통합하여 생산효율을 높이고 있음. 동사는 일본산 고품질을 전면에 내세워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시장에서 브랜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유니클로, 아시아 지역에서 대형점 전략 확대

- 유니클로사가 브랜드 발신거점인 대형점을 기함점으로 자리매김하여 파리나 런던, 뉴욕, 상하이 등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는 타이페이와 서울에도 개점할 예정임.
- 동사 사장은 10년후에는 아시아 지역의 대도시들이 현재의 파리나 런던, 동경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방콕이나 자카르타, 마닐라 등에서의 사업도 전개할 것임을 시사하고, 동남아시아 전체로 1차 소매점포 수를 현재의 7개에서 2020년까지 1,000개로 늘릴 방침임.

□ 닛산, 2016년에 한국판매 배로 늘려

- 닛산자동차는 한국시장에서의 판매대수를 2016년에 2011년의 두 배로 확대할 방침. 금년 판매목표는 작년보다 20% 증가한 8,000대, 수입차의 시장전망이 밝아 판매체제를 확충, 고급브랜드 차종인 인피니티를 포함한 판매점의 수를 현재 13개에서 수년 내에 28개로 증설할 방침.

◆ 경제산업성 동향

□ 콜롬비아와 투자협정 서명 및 경제연대협정(EPA)교섭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

- 일본정부, 「일본-콜롬비아 투자협정」 서명 결정
 - 투자 보호·투자환경 정비에 목적
 - 콜롬비아내 투자환경의 법적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일본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원활케 함
 - 중남미 지역과의 관계 강화
 - 콜롬비아는 풍부한 자원과 고도성장 등으로 앞으로 근린국가들과의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주목되고 있어, 동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남미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일본의 투자협정으로서는 콜롬비아와의 투자협정이 17번째이며 중남미국가와의 투자협정으로는 페루에 이어 2번째임.
- 경제연대협정(EPA)교섭 개시를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 착수
 - 한편, 일본 정부는 9월 6일 콜롬비아와 양국간 경제교류에 관한 포괄적인 경제연대협정(EPA) 교섭 개시를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에 착수할 방침을 굳힘.

□ 에너지효율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SEP) 제1회 워크숍 개최(9월6일)

- 경제산업성은 미국 에너지성, 핀란드 고용경제성과 공동으로 에너지효율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 제 1회 워크숍을 워싱턴에서 개최
 - GSEP는 작년 7월 미·일 공동 주도하에 설립된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국제적인 민·관파트너십 기구로서 6개의 워킹그룹이 활동, 일본은 3개의 T/C (철강, 시멘트, 전력)에서 부문별로 파트너십 활동을 확대하고 있음.
- 일본은 앞으로도 GSEP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민·관 협력파트너십 촉진, 클린 에너지기술의 보급을 주도할 계획임.

◆ 보고서 리뷰

『경쟁력 강화를 위한 MICE 진흥 방향(上) ~ 도시의 집적기능 강화』

노무라종합연구소, 9월6일

□ 성장의 엔진으로서 MICE산업

- 성장 엔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도시의 집적기능 강화를 위해 「MICE」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이는 MICE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시장 규모가 매우 크고, 저변이 넓은데다, MICE 개최가 여러가지 거래나 기술혁신을 유발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임.
- MICE는 많은 사람들의 집객교류를 가능케하는 기업 등의 회의(Meeting), 기업이 실시하는 연수여행 등(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이벤트·전본시(Exhibition&Event) 을 총칭
- 최근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MICE 개최에 주력하고 있음. 예를들면, 중국의 경우 「제12차 5개화 계획」 하에 상하이, 베이징, 광주 등지에서 대규모의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 본격적인 추진단계

- 이와 비교하여 일본의 경우, MICE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체제에 들어간 단계임. 2010년을 「JAPAN MICE 해」로 정하여 프로모션을 시작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인지도는 아직까지는 낮은 편임.
- 이에 글로벌한 사회에서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력수단으로서 ▲글로벌 프로모션 강화, ▲존재감 있는 MICE시설·지역 정비, ▲PPP(민·관·제휴)에 의한 복합적인 거점 구축 등을 통하여 MICE진흥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 특히, 동일본 대지진이나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의 복구·부흥에 MICE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쓰나미 방지를 위한 컨벤션 등 지진재해 부흥에도 기여하는 MICE 개최를 통하여 외국인들의 방일기회를 늘리고 피해지역을 포함한 일본의 안전성을 호소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임.

□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시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전시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MICE산업이나 집객산업(visiting industry)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

- (1) 『2011년판, 일본무역의 현상』 일본무역회, 9월3일

*출처: <http://www.jftc.or.jp/research/index.html>

- (2) 『서플라이체인의 재구축 구상』 죠요(常陽)지역연구센터, 9월3일

*출처: <http://www.arc.or.jp/ARC/201109/ARC1109gatu/1109ronnsetu.pdf>

-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MICE 진흥 방향(上) ~ 도시의 집적기능 강화』
노무라종합연구소, 9월6일

*출처: <http://www.nri.co.jp/opinion/chitekishisan/2011/pdf/cs20110703.pdf>

- (4) 『환경과 격차사회』 일본정책투자은행, 9월7일

*출처: http://www.dbj.jp/ricf/pdf/research/DBJ_RCGW_DP44.pdf

- (5) 『관세, 오프쇼어·아웃소싱과 실업』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 9월8일

*출처: http://www.esri.go.jp/jp/archive/e_dis/e_dis280/e_dis272.html

- (6) 『외교청서(2011)』 일본 외무성, 9월9일

*출처: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11/pdf/index.html>